

대학생의 일 의지와 제약, 진로 적응성, 진로불안의 관계

이숙정*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e-mail: leesjeong@sookmyung.ac.kr

The Relations among Work Volition,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Anxiety in College Students

Sook-Jeong Lee*

*Div. of Gener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 자유의지(의지, 제약)와 진로 적응성, 진로불안의 관계를 분석하여 진로지도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22명(여: 130명, 남: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일 자유의지, 진로 적응성, 진로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매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 자유의지, 진로적응성, 진로불안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일 자유의지의 하위요인 중 의지는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진로불안에 부적 영향을 주었고, 제약 요인은 진로적응성에 부적 영향을, 진로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 자유의지(의지, 제약)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진로의지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취업준비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약 요인들을 탐색하여 진로적응성을 높이고 진로 불안을 낮추는 데 활용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차원의 적극적인 진로상담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고도화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진로 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경제 불안과 이에 따른 급격한 일자리 변동 속에서 대학생들은 미래 일자리에 대해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대학생들의 입직 준비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진로 불안은 진로 의사결정 이전과 그 과정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진로 미결정 상태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업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을 내포하고 있다[1].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안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진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2], 결과적으로 부정적 진로 기대[3], 진로미결정[4]을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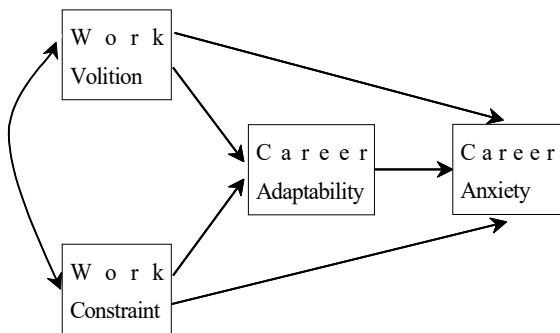
그동안 수행된 진로불안 관련 선행연구들은 진로불안에 영

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5],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등 개인 내 심리적 변인들에 주로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접근은 진로준비와 선택의 과정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자신의 관심과 가치에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황, 낮은 청년고용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개인 내적 변인만으로는 진로불안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6].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 일에 종사하며 직장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7], 관련 선행연구들도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측면과 더불어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에 방해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준비의 과정은 현실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관

점이 등장하였다. 진로선택 과정에서 사회 및 경제적인 제약 측면을 고려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일의 심리학(Psychology of Working Theory) 이론을 들 수 있다. 일의 심리학에서는 경제적 제약 및 자원의 한계가 겹치는 일을 추구하는데 영향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8]. 즉 개인이 직업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적 측면의 능력, 적성과 흥미뿐 아니라, 외부의 제약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검토한 연구들과 관련 이론들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일 자유의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의지와 제약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변인들 간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진로선택에 있어서 제약 요인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을 두게 되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취업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자유의지를 구성하는 의지와 제약의 두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일 의지와 일 제약이 진로적응을 매개로 진로불안에 미치는 경로이며,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3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되지 않거나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2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0.59세(SD=1.57), 연령 범위는 18세~25세이며, 성별 분포는 여학생 130명(58.6%), 남학생 92(41.4%)이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24(55.9%)명, 2학년 72명(32.4%), 3학년 26명(11.7%)이다.

2.2 연구 도구

2.2.1 일 자유의지

대학생이 인식하는 일 자유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김나래와 이기학이 타당화 한 일 자유의지 척도(Work Volition Scale: WV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는 .75~.83이다.

2.2.2 진로 적응성

진로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민선과 고은영이 타당화한 진로 적응성 단축형 척도(Korean Career Adapt-Abilities Scale Short-Form: K-CAAS-SF)를 사용하였다. 진로문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선택을 하기 전 대안을 탐색한다), 자신감과 통제(조절)(내 능력을 다 발휘한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는 .88이다.

2.2.3 진로불안

진로 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진로 결정의 어려움 관련 정서 및 성격 척도의 대학생용 한국 축소판 도구[3]의 하위변인 중 진로 불안에 해당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7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는 0.92이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모든 분석은 SPSS WIN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문항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 자유의지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χ^2 외에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적합도 지수도 산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Pearson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일 의지의 평균은 4.47(SD=.96), 일 제약의 평

균은 4.05(SD=.85), 진로적응성의 평균은 3.99(SD=.58), 진로 불안의 평균은 3.55(SD=1.31)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Variables	1	2	3	4
1. Work Volition	-	-.410	.550	-.521
2. Work Constraint		-	-.422	.630
3. Career Adaptability			-	-.557
4. Career Anxiety				-
M	4.47	4.05	3.99	3.55
SD	.96	.85	.58	1.31

***p<.001

3.2 연구모형 검증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설정한 일 자유의지, 진로적응성 및 진로불안의 관계에 대하여 완전매개 모형(Model 1)과 부분매개 모형(Model 2)의 두 가지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	LO 90, HI 90
Model 1	83.773	16	.924	.867	.138	.110, .168
Model 2	23.884	14	.989	.978	.057	.006, .094

완전매개 모형의 경우, 적합도 지수가 CFI=.924, TLI=.867, RMSEA=.138이었다. CFI는 양호도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TLI와 RMSEA의 경우 양호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매개 모형의 경우, CFI=.989, TLI=.978, RMSEA=.057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분매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고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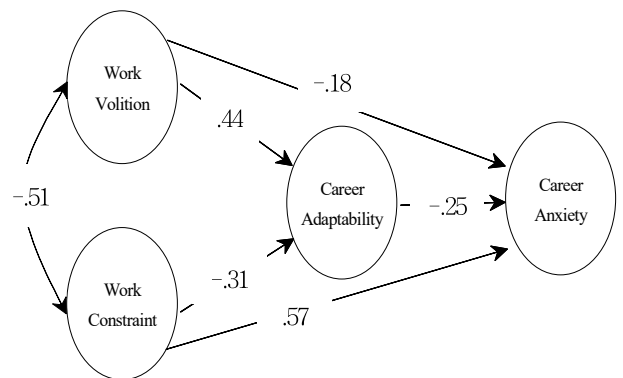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 의지와 일 제약은 -.51의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일 의지는 진로 적응성에 정적 영향(.44)을, 진로불안에 부적 영향(-.18)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제약은 진로 적응성에 부적 영향(-.31), 진로불안에 정적 영향(.57)을 주었다. 매개변인 진로 적응성은 진로불안에 부적 영향(-.2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계수와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Path	B	β	S. E.	C. R.
WV→CA	.244	.436***	.049	4.970
WC→CA	-.198	-.308***	.058	-3.408
CA→CAN	-.579	-.252**	.191	-3.030
WV→CAN	-.229	-.178*	.103	-2.234
WC→CAN	.839	.569***	.137	6.147
WA↔WC	-.394	-.506***	.074	-5.289

*p<.05, **p<.01, ***p<.001

WV: Work Volition, WC: Work Constraint, CA: Career Adaptability, CAN: Career Anxiety



[그림 2] 최종모형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 및 진로불안의 관계를 분석하여 대학의 진로지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대학생의 안정적인 진로발달을 위해 대학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제약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은 주로 개인의 내적 특성인 의지력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진로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돌리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일의 심리학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진로시장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의 진로 선택 과정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제약 요건, 그리고 그러한 제약을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적응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도 일 의지와 제약 모두 개인의 진로 적응성에 따라 진로에 대한 불안심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 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로지도를 실시할 때, 상담자가 개인의 내적 측면인 심리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로지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개인에게 처한 환경적인 측면인 제약을 고려하여 진로상담과 진로지도를 할 것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진로 의지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취업 준비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약 요인들을 탐색하여 진로 적응성을 높이고 진로불안을 낮추는 데 활용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차원의 적극적인 진로상담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고도화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생들이었으나, 상대적으로 1학년의 비중이 55.9%로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 자유의지, 환경적 제약 요건 등은 취업준비가 구체화되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년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여 진로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의 심리학을 토대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분석과 지지하지 않는 분석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양한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론의 견고함을 위해서 경험적 검증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K. Min, B. Kim, "A validation study of emotional and personality career difficultie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7, No.2, pp.109-131, Jun. 2014.
- [2] M. S. Kim, K. J. Y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Korean Short Version of the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scale with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7, No.3, pp.65-94, Sep. 2014.
- [3] M. S. Kim,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career conflict and career decision difficulties among university student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essimistic views and anxie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12, pp.135-157, Dec. 2018.
- [4] H. Y. Hong, H. S. An,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on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6, No.7, pp.149-175, Aug. 2009.
- [5] O. K. Back, *The Effect of Undergraduate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Self-esteem on Indecision*. Kookmin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Korea, 2010.
- [6] G. Y. Lee, *The Effect of Work Volition on Career Anxiety: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ster's Thesis, Seoul, Korea, 2019.
- [7] H. Cho, E. S. Lee, B. Son,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Career Plann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Career Self-Understand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21, No.4, pp.975-999, Dec. 2020.
- [8] G. Y. Lee, *The Effect of Work Volition on Career Anxiety: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ster's Thesis, Seoul, Korea, 2019.